

일제 독립운동 수형인 5323명 광주·전남 1985명 전국 최다

보훈처, 전국 시·군·읍·면 전수조사
독립운동 중심지 광주·전남
727명 유공자 지정 안 돼
재평가 작업 이뤄져야

■ 독립운동 관련 수형인 및 수형기록 수집 현황

구분	광주	서울	인천	강원	부산	대구	대전	충북	전북	제주	기타	합계
독립	1258	23	156	11	78	237	486	62	81	156	288	2836
운동	727	79	389	0	120	167	719	41	48	58	139	2487
(명) 소계	1985	102	456	11	198	404	1205	103	129	214	427	5323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광주·전남의 3·1운동 등 독립운동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으로 처벌을 받은 지역민 수형자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수형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 부산·경남 보다는 각각 5배, 10배나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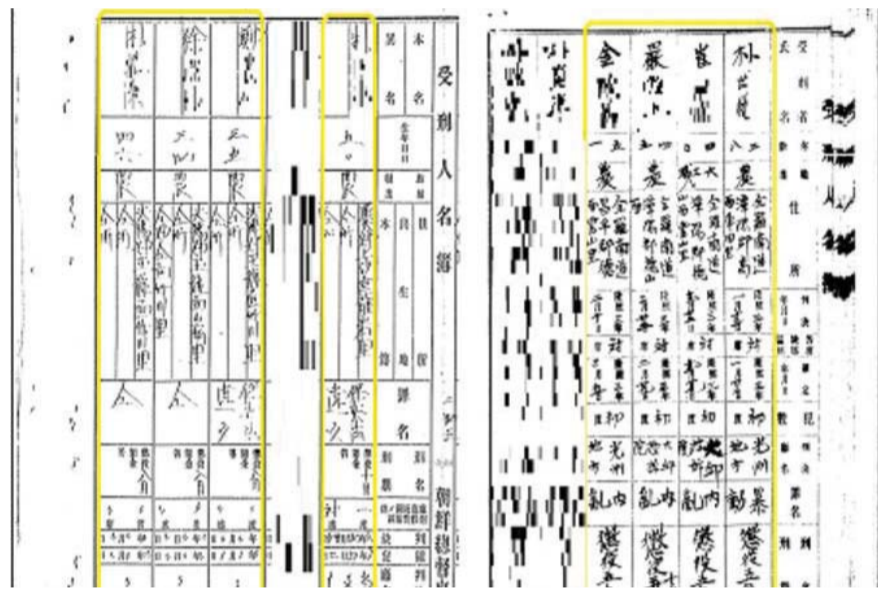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에 대한 전국 시(군)·읍·면 전수조사를 통해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 5323명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수조사 분석 결과, 독립운동 관련 죄명(보안법·소요·대정8년제령7호·치안유지법 등)의 수형자는 광주·전남지역이 1985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충남 1205명, 인천·경기 456명, 대구·경북 404명, 제주 214명, 부산·경남 198명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광주지방재판소 자료(광주·전남·제주·북한 등 기타 지역)에서 확인된 2626명 중 2282명(86.9%, 사형 66명·중신형 9명 포함)은 징역형 이상으로, 대부분 호남의병과 3·1운동 참여자였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수형자 가운데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2487명이었다. 광주·전남 727명, 대전·충남 719명, 인천·경기 389명, 대구·경북 167명, 부산·울산·경남 120명 등 순이었다.

광주·전남 727명 중 징역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457명으로 전국 최다였고, 몽둥이



광주지방재판소의 수형인명부.

로 불기를 때리는 태형 90대를 맞은 사람도 67명이나 됐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은 수형자는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전국 1621개 읍·면·문서고 등을 보훈처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이뤄졌다. 광주·전남·제주지역은 당시 이 지역을 관할했던 광주지방재판소 검사국의 1908년부터 1945년까지 전체 수형인명부를 분석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지역 근대사 전문가들은 타 지역의 독립운동에 비해 저평가를 받아왔던 광주·전남이 실제로는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었다는 사실이 공식 자료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한국독립연구사’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의 ‘독립운동사’에 따르면 3·1운동 시위 횟수는 전북이 39회, 전남이 44회로 북한을 포함한 전국 13개 도에서 최하위였다. 하지만 의병활동

은 이와 정반대였다. 3·1운동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펼쳐진 지역별 의병투쟁(1908~1909)을 살펴보면 전남에서 일제에 대항해 821회(참가인명 2만8123명)의 전투가 벌어졌고 전북에서는 492회(1만5536명) 싸웠다. 이 둘을 합치면 전국 3714회(12만1360명)의 35.3%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한말 의병투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대규모로 일제에 붙잡히며 3·1운동 투쟁 역량이 크게 손실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순홍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은 “광주·전남은 독립운동가들이 해방 후 사회주의 활동을 많이해 유공자로 포상받지 못한 분이 많다”며 “호남은 임진관부터 시작해 5·18, 6월항쟁까지 큰 역할을 했지만 좌우 대립 속에 묻혔다. 이제라도 전수조사와 함께 재평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아직 읍·면 자료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아 앞으로 더 많은 유공 대상자들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각 지자체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코레일 소유인 광주역 차량기지 이전 논의가 시작되는 등 광주역 주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17일 인근 건물에서 바라본 광주역의 모습. /최한배 기자 choi@kwangju.co.kr

차량기지 이전 논의 ... 광주역 도시재생뉴딜 본격화

활성화 계획 2월 8일 확정

광주역 차량기지 이전 논의가 시작되는 등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본격화 하고 있다.

광주시는 17일 “광주역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코레일과 차량기지 이전 논의를 거쳐 오는 2월 8일 광주역 활성화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코레

일은 특히 새마을·무궁화호가 운행 중인 역사를 제외한 광주역 내 국·공유지 사용방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광주역 부지는 20만㎡가량이며 이 가운데 국·공유지 10만㎡가량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차량기지가 이전하면 그 부지와 사용되지 않는 국·공유지에 역사·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복합시설 조성과 함께 광주역 주변

50만㎡ 부지에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문화산업 경제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사업 계획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역 복합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철도시설(차량기지) 이전용역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3월까지 국토부 승인을 받아 사업 계획과 사업비를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전공대 후보지 6곳 모두 정밀 심사

광주·전남 각각 3곳 추천

오는 28일 한전공대의 최종 입지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입지 후보지역에 대한 정밀 심사가 이뤄진다. 광주시는 남구 대촌동 도시점단산단, 남구 승촌동 영산강문화관 수변공원, 북구 오룡동 첨단산단 3지구 등을 후보지로 신청했다. 전남도는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 산림자연연구소,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 농업기술원, 나주시 혁신로 부영CC 등을 후보지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한전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공대 부지선정 심사위원회는 오는 23일 입지 후보 지역 지자체로부터 프레젠테이션(PT)을 받고 질의·응답 과정을 갖는다. 광주시는 상생발전, 산학연계, 정

주여건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반면 전남도는 균형발전, 집적효과, 비용절감 등의 논리로 심사위원들을 설득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지선정 위원회는 24일 6곳의 입지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에 나선다. 현장 실사와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오후 시간대를 선호함에 따라 제비뽑기를 통해 광주시가 오전, 전남도가 오후로 결정되는 등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였다. 후문이다.

부지선정 위원회는 25일 최종 평가에 나서는데, 6곳의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하지 않고 모든 후보지에 대해 일괄 평가를 실시한다. 입지 후보지에 대한 평가 결과는 밀봉된 채 27일까지 보관된다. 보관된 평가 결과는 28일 오전 점수 집계 절차를 거쳐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국가균

형발전위원장이 발표한다. 하지만 각 입지 후보지에 대한 상세한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부지선정 심사위원회는 2인의 공동 위원장과 19명의 위원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부지선정 위원들은 후시라도 있을 논란을 우려, 철저히 광주·전남 지역 연계를 배제하고 선정됐다. 이를 위해, 심사위원들의 분석과 주소, 출신 고교까지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인의 공동 위원장은 국내와 국외의 전문가가 각기 임명됐다. 또 부지선정 위원들은 평가 결과 유출이나 로비 등을 피하기 위해 2박3일 동안 합숙에 들어간다.

한편, 한전은 입지 선정이 마무리되면 이달 말 한전공대 운영방안 등의 계획을 담은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개최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W
한울 달빛유자 수면팩

한울 달빛유자 수면팩

잘가, 피부 피로
잘자, 내 피부

고흥 유자 6개를 고스란히 담아 유자비타C 콤플렉스™의 향산화력으로
피부피로를 싸악 풀어 다음 날, 생기 가득 환한 피부

한울 韓律

· 전국 이리파우, 미네, 아모레퍼미픽, 메경, 아모레퍼미픽 온라인몰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http://www.amorepacific.com · 전화번호: 080-023-5454